

진도교육청, 보배섬 농산어촌유학 환영식 2022 개최

총 7명의 학생, 소중한 학창 시절 보낼 예정 “지자체와 연계해 작은 학교 살리기 나설 것”

진도교육지원청은 25일 금성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유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배섬 농산어촌유학생 환영식 2022’를 개최하였다.

진도의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은, 2021학년도 진도지산중 1명을 시작으로 올해 금성초 4명, 진도군내중 2명이 신규로 유학을 신청하여, 총 7명의 학생들이 소중한 학창 시절을 보낼 예정이다.

이날 환영식은 교육장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진도군수를 대신하여 참석한 진도군청 일자리투자과장의 환영사와 학교장·학교 동문·운영위원회·면사무소 등 진도교육공동체의 꽃다발과 선물 증정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보배섬 진도로 온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금성초와 진도군내중 학생과 교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진도지역 유학 학생들의 거주유형은 전원 가족제류형이며, 작은학교 살리기와 마을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가 발굴과 확보, 농산어촌유학마을 조성과 같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환영식에서 이문포 교육장은 “전남의 작은학교 교육과정은 학습·체험·상담 등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촘촘히 설계되어 있고, 많은 학교가 직면한 학교폭력 문제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으며, 향후 농산어촌 유학사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조성용 기자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 업무 컨설팅 실시



전라남도교육청이 8월 26일 ~ 9월 15일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은 노무 관련 법규 해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10월 체결한 단체협약 전달 등을 통해 노무관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의 주요사항을 사전에 제공해 자체 점검토록 하고, 이에 따른 질의를 사전에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도교육청 관계자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정보와 업무처리 방식을 안내해주는 맞춤형 컨설팅이다.

박진수 노사정책과장은 “이번 컨설팅이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 업무담당자의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업무매뉴얼 발간 등을 통해 업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나주교육청, 2022년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영산포여자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영산포여자중학교 전교생 대상

이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성폭력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으며 광주·전남 각지에서 성폭력 상담과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 중인 강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예방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여학생들만 생활하는 학교여서인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하여 더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성폭력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과 피해를 예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어 도움 되었다”고 말했다.

박윤자 교육장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은 존재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가 학창 시절이라는 말에는 이견이 없다. 그 소중한 시기가 폭력으로 얼룩져 성년이 되었을 때 가해학생은 자신의 꿈을 펼칠 때 어려움을 겪고, 피해학생은 신체·정신적 피해를 이겨내지 못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안일 것”이라고 이번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교육청, 퇴직교원 간담회 운영

담양교육지원청은 25일 2022년 8월말 정년 퇴직 교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에서 40여년을 오로지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코로나19가 3년여 이어져 오는 지금까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2022년 8월말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7명의 교원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하고 40여년 교직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중호 월산초 교장은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주어진 일을 하느라



참 바쁘게 살았다. 퇴직을 앞두고 보니 이제는 주변에 기분 좋은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법은 고민해 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중앙초,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가정학생 지원 나서

학생지원활동 위한 학교-지역사회 협의회 실시

장성중앙초등학교는 지난 24일 장성가정복지회관에서 학생지원활동을 위한 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의회를 가졌다.

본교 위기가정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자 그리고 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함께 모여 학생 지원에 대해 다방면의 문제와 해결점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을 결정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무기력, 폭력성, 공감적 능력저하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놀이치료를 지원 할 것이다. 장성군청과 위탁센

터는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장성군청 최00 사례 관리 담당자는 “가정에서 학부모에게만 들었던 학생의 모습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진정한 사회적 모습을 듣고 알 수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도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고00 담당자는 “학교와 지역군청 그리고 센터가 함께 가정과 유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분



야에서 도움에 제공할 수 있는 협조적 분위기가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